

임진왜란 후 조·일간 국교재개 과정 연구*

방 기 철**

1. 머리말
2. 일본의 국교재개 요청
3. 조선의 探賊使 파견
4. 국교재개와 德川家康 인식
5. 맺음말

1. 머리말

1592년 4월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壬辰倭亂은 1598년까지 7년 여에 걸쳐 지속되었다. 전쟁으로 조선의 국토는 전쟁터가 되면서 150만결의 토지가 50만결로 줄어들었다. 국왕이 도성을 버리고 義州까지 피난을 가야만 했고, 景福宮과 昌德宮 등의 궁궐이 불타 사라졌다. 선왕의 묘인 宣陵과 靖陵이 도굴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전사자와 사상자 등 인명피해는 최소 17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일본으로 납치된 被虜人의 수만

* 이 연구는 2012년도 선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짐.

** 선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해도 10만 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 전쟁 중 실시했던 軍功이나 納贖 등을 통해 신분제도 역시 흔들리고 있었다.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극복하고 왕조는 유지했지만 사회체제 자체는 완전히 무너졌던 것이다.

전후 조선인들은 일본을 “하늘을 함께 할 수 없는 원수〔不俱戴天之讎〕”· “만세를 함께 할 수 없는 원수〔萬世不共之讐〕”로 규정했고, 九世復讐說 등이 공론화 되는 등 일본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당시 조선의 정서는 일본과의 강화는 언급할 수 없는 하나의 금기처럼 이해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임진왜란 이전과 같은 일본과의 交隣관계 회복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조선침략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豊信秀吉)가 사망한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정권을 장악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에야스는 조선과의 외교관계 복원을 염원하였다. 또 전쟁 전 조·일관계에 있어 중개자 역할을 수행했던 쓰시마 섬(對馬島)으로서는 경제의 상당 부분을 조선에 의지하고 있었던 만큼, 조선과의 국교재개는 생존과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조선과 일본은 국교재개에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이었지만, 전후 불과 9년 만에 외교관계를 복원했다. 조선과 일본의 국교재개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선 정부가 일본의 국교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피로인 송환의 필요성과 북쪽 女眞族의 침략 가능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 국교재개 과정에서 쓰시마의

1) 일본군이 납치한 조선인 피로인의 수를 일본에서는 대략 2~3만여 명(內藤雋輔, 『文祿・慶長における被虜人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76), 5만 명 이상(山口正之, 『朝鮮西敎史』, 雄山閣, 1967)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최소 10만여 명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金義煥, 『朝鮮通信使의 발자취』, 정음문화사, 1985; 李元淳, 『壬辰・丁酉倭亂時의 朝鮮俘虜奴隸問題-倭亂 性格 一貌-』, 『朝鮮時代史論集-안(한국)과 밖(세계)의 만남의 역사』, 느티나무, 1993; 李塚衍, 『壬辰倭亂 捕虜實記研究』, 박이정, 1995). 한편 민덕기는 9~14만여 명(『임진왜란 중의 납치된 조선인 문제-被虜人 규모와 기존연구의 검토를 중심으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景仁文化社, 2005), 최호균은 40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일본에 끌려갔다고 하였다(『壬辰・丁酉再亂期 人命 被害에 대한 계량적 연구』, 『國史館論叢』89, 國史編纂委員會, 2005).

공작이 있었음도 밝혀졌다.²⁾ 이들 연구는 국교재개 과정에서의 쓰시마의 역할과, 조선 정부의 대응이라는 관점에 주목한 것이다. 그 외 강화협상 과정에서 李德馨과 柳永慶의 정책전개 과정이 국교재개의 핵심이었음을 파악한 연구,³⁾ 探敵使로 파견되었던 惟政의 외교활동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⁴⁾ 조·일간 국교재개에 있어 일본에 납치되었다 귀국한 피로인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도 구명되었다.⁵⁾ 또 국교재개를 위해 1607년 파견되었던 回答兼刷還使의 외교활동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⁶⁾

-
- 2) 조선과 일본의 국교재개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구들이 참고 된다. 中村榮孝, 『江戸時代の日朝關係』, 『日鮮關係史の研究』下, 吉川弘文館, 1969 ; 田中健夫, 『鎖國成立期における朝鮮との關係』, 『中世對外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1975 ; 三宅英利, 『徳川政権初回の朝鮮通信使』, 『朝鮮學報』82, 朝鮮學會, 1977 ; 柳在春, 『壬亂後 朝日國交 再開와 國書改작에 關한 研究』, 『江原史學』2, 江原大學校史學會, 1986 ; 閔德基, 『壬辰倭亂 以後의 朝·日 講和交渉과 對馬島-交隣·羈縻秩序의 再編을 중심으로-』(1), 『史學研究』39, 韓國史學會, 1987 ; 閔德基, 『壬辰倭亂 以後의 朝·日 講和交渉과 對馬島-交隣·羈縻秩序의 再編을 중심으로-』(2), 『史學研究』40, 韓國史學會, 1989 ; 閔德基, 『朝鮮後期 朝·日講和와 朝明關係』, 『國史館論叢』12, 國史編纂委員會, 1990 ; 李敏昊, 『壬辰倭亂後 朝鮮의 對日外交-國交再開過程-』,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 海軍軍史研究室, 1993 ; 孫承喆, 『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 지성의 샘, 1994 ; 洪性德, 『壬辰倭亂 직후 日本의 對朝鮮 講和交渉』, 『韓日關係史研究』3, 한일관계사연구회, 1995 ; 洪性德, 『17世紀初 對日政策의 確立過程과 그 性格』, 『全北史學』19·20, 全北大學校史學會, 1997 ; 李薰, 『일본과의 관계』, 『한국사』32, 국사편찬위원회, 1997 ; 이진희, 『朝鮮朝 후반기의 한일관계-새로운 善隣關係 구축을 위해-』, 『되돌아 본 한일관계』, 景仁文化社, 2005 ; 민덕기, 『朝日 國交 재개교섭에 나타난 朝·明·日의 立場과 대응』, 『동아시아세계와 임진왜란』, 景仁文化社, 2010 ; 이계황, 『임진왜란과 동아시아-국교 재개 교섭기를 중심으로-』, 『한일역사의 쟁점2010』 1, 景仁文化社, 2010.
- 3) 김정태, 『임진왜란 직후, 대일강화정책의 성격연구』, 『韓國史』138, 韓國史學會, 2007.
- 4) 金榮作, 『壬辰倭亂 前後의 韓·日 交渉史를 통해서 본 戰爭과 平和의 辨證法-四溟大師의 對日交渉을 중심으로-』, 『四溟堂과 壬亂 및 講和交渉』, 四溟堂記念事業會, 1999 ; 裴奎範, 『四溟大師 惟政의 日本體驗과 布教文學의 指向』, 『古典文學研究』18, 韓國古典文學會, 2000 ; 貫井正之, 『壬辰倭亂 前後의 四溟大師의 對日外交』, 『사명당 유정』, 지식산업사, 2001 ; 仲尾宏, 『松雲大師 惟政과 日·朝復交』, 『사명당 유정』, 지식산업사, 2001 ; 손승철, 『松雲大師(四溟堂) 對日使行의 외교사적 의미』, 『韓日關係史研究』21, 한일관계사학회, 2001 ; 河宇鳳, 『壬亂後 國交再改期 사명당 惟政의 講和活動』, 『歷史學報』173, 歷史學會, 2002 ; 채상식, 『四溟大師의 일본행과 이에 대한 양국의 태도』, 『韓國民族文化』2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6 ; 손승철, 『四溟大師와 韓日關係』, 『江原史學』22·23合輯, 江原大學校史學會, 2008 ; 한태문, 『조선후기 通信使와 四溟堂』, 『語文研究』64, 2010, 語文研究學會.
- 5) 方琪喆, 『1607년 朝·日간 국교재개시 被虜人의 역할』, 『歷史學研究』42, 湖南史學會, 2011.
- 6) 李敏昊, 『壬辰倭亂後 첫 번째 回答兼 刷還使의 派遣』, 『東西史學』1, 韓國東西史學會, 1995 ;

이들 연구를 통해 임진왜란 후 조·일간 외교관계 복원 과정의 대체적인 모습은 복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조선 정부가 일본과의 강화를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선이 일본의 국교재개 요구를 받아들임에 있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적 요소, 구체적으로 일본에 대한 시각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형편인 것 같다.

이 글에서는 종전과 거의 동시부터 이루어진 일본의 국교재개 요청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응, 조선 정부가 국교재개를 위해 파견했던 탐적사 유정의 일본에서의 행적 등을 통해 조선과 일본의 외교관계가 복원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조선이 일본의 국교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 중 하나가 조선인들이 전쟁의 원흉으로 규정했던 히데요시와 달리 이에야스 정권에 대해서는 우호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을 구명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전후 조일관계에서 국교재개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와 조선인의 대일인식의 변화되는 모습도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일본의 국교재개 요청

일본군이 조선에서 한창 전쟁중이던 1598년 6월 8일 히데요시는 단오절 축하 행사 후 胃痛을 호소했다. 히데요시의 병세는 8월 5일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18일 사망하였다. 히데요시 사후 고다이로(五大老)⁷⁾들은 철군을 결정하고, 9월 5일자로 조선에 파견된 장수들에게 철군을 명령함과 동시에 화의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⁸⁾

鄭章植, 「1607年 回答兼刷還使의 刷還과 敵情 探索」, 『日本學報』51, 韓國日本學會, 2002.

7) 히데요시는 전국통일 후 다섯 명의 다이묘(大名)를 선정, 최고 정무기관을 설치했다. 그 구성원은 이에야스, 마에다 도시이에(前田利家), 우키다 히데이에(宇喜多秀家),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 우에스기 카케카쓰(上杉景勝),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召早川隆景) 등 모두 6인이었다. 그러나 다카카게 사후 5인이 되어 고다이로라고 부르게 되었다.

8) 洪性德, 1995, 앞의 글 7쪽 참조.

조선내에 있던 일본군은 철군 명령을 받아 고시도키(要時羅)를 명군 진영에 인질로 보냈다. 그러자 명 제독 董一元은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에게 茅國科, 劉縝은 劉万壽과 王建攻, 陳璘은 陳文棟 등을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에게 인질로 보냈다.⁹⁾ 이 때 일본군이 조선이 아닌 명 장수들을 화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조선의 항전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었다.¹⁰⁾ 하지만 철군 후 일본은 명이 아닌 외교대상자인 조선 정부에 직접 사신을 파견하여 강화를 요청하였다.

전쟁이 끝난 지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598년 12월 쓰시마는 조선에 사신을 보내 왔다.¹¹⁾ 이 때 조선에 온 쓰시마 사신의 임무가 무엇이었던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국교재개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²⁾ 이후 1598년 12월, 1599년 3월과 6월에도 쓰시마는 사신을 파견하여 강화를 요청했다. 1600년에도 유타니 야스케(柚谷彌介)를 조선에 파견하여 국교재개를 요청했지만,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조선 정부로서는 일본 정세의 파악 실패, 국민정서와 현실 사이 딜레마, 명의 간섭 등의 장애요인으로,¹³⁾ 일본과의 국교재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조선과의 국교재개를 위해 일본 중앙정부가 아닌 쓰시마가 조선 정부에 사신을 파견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히데요시 사후 집권한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에 의해 비롯된 대외적 과제를 청산하고, 자신에게 대항하는 세력에 대한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조선과의 국교재개가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먼저 강화를 요청하는 것을 굴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때문에 지방세력인 쓰시마로 하여금 조선과의 강화교섭에 나서게 하였던 것이다.¹⁴⁾ 한편 쓰시마로서는 재정의 대부분을 조선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9) 中村榮孝, 『日本と朝鮮』, 至文堂, 1966, 198쪽 참조.

10) 中村榮孝, 앞의 글, 253~254쪽 참조.

11) 『宣祖實錄』 卷115, 32年 7月 辛酉.

12) 李敏昊, 1993, 앞의 글, 523쪽 참조.

13) 洪性德, 1997, 앞의 글, 202쪽 참조.

14) 閔德基, 「임진왜란 전후의 東北亞 國際秩序의 변화」, 『사명당 유정』, 지식산업사, 2001, 385쪽 참조.

있었다. 따라서 전쟁 이전과 같이 조선과의 무역 및 통상의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일간 국교의 정상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이에야스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조선에 대해 국교재개를 강하게 요구했던 것이다.

국교재개 요구에 대해 조선 정부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 쓰시마는 피로인 송환과 함께 조선에 대한 재침 가능성을 흘리는 강온양면책을 전개하였다. 즉 피로인을 송환하여 조선 정부의 환심을 사는 한편, 만약 강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본의 재침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통해 조선을 압박함으로써 국교재개를 이루려 했던 것이다.

일본군 철수 후 조선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일본의 재침여부였다. 일본이 국교재개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조선내에서는 일본군이 재침할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는 상태였다.¹⁵⁾ 조선 정부는 명과 일본에서 돌아온 피로인들로부터 히데요시 사후 이에야스가 정권을 장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야스에게 조선을 공격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조선과 교린 관계 회복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형편이었다. 일본에서 돌아 온 피로인들 중 鄭希得·玉信辨·黃大成·金大函 등은 일본이 침략할 것이라는 소문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반면 魯認·張番石·文億守·朴彦璜 등은 일본의 재침가능성을 인정하였다.¹⁶⁾

전후 조선은 일본과 국교를 단절했던 만큼 일본에서 귀국한 피로인들에게 대일정보의 상당부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로인들마저도 일본의 재침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조선 정부로서는 보다 명확한 정보가 필요했다. 그 결과 조선 정부는 1600년 軍官 金達, 校生 朴希根, 通事 李希萬 등을 쓰시마에 파견하여 일본의 정세를 파악토록 했던 것이다.¹⁷⁾

15) 『瓊尾錄』第七, 己亥日錄 7月 24日

且聞倭賊刷還我國人十餘 因言前日所送請和使至今不來 汝國若不卽送 卽明年二月舉兵復來云 因刷還人 聞秀吉既死 其子嗣位 年纔八歲 與秀吉同姓者攝政 威權震於賊中 清正以下皆俯伏聽令 其兵雖已渡海 而尙未罷散 日日鍊習 爲明年二月大舉入寇之計無疑云 極可慮也.

16) 方琪堦, 앞의 글, 53~55쪽 참조.

17) 『宣祖實錄』卷126, 33年 6月 丙戌.

조선에게 있어 일본과의 국교재개 결정에 있어 또 하나의 난처한 문제는 과연 쓰시마의 강화요청이 이에야스의 뜻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1600년 4월 쓰시마는 조선과의 강화가 이에야스의 뜻을 조선 정부에 알려왔다.¹⁸⁾ 또 일본에 머물던 明人 王建功은 이에야스는 조선과의 강화를 바라며 침략할 뜻이 없다는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¹⁹⁾ 조선 정부는 보다 정확한 정보 확보를 위해 1601년 일본에서 탈출한 피로인 김대함을 몰래 일본에 보내 적정 탐색을 시도했다.²⁰⁾ 하지만 김대함을 통해 일본의 고급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과, 사로잡힐 경우 오히려 조선의 사정을 일본에 알리게 될 것을 염려하여 중단하였다.²¹⁾ 일본에 대한 정보 부족은 조선 정부에게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했고, 그 결과 이듬해 일본에 답서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全繼信·孫文彧·金孝舜 등을 쓰시마에 파견하여 일본의 정세를 살폈다.²²⁾

1602년 11월 조선에 온 다치바나 도시마사(橋智正)는 이에야스가 강화의 전권을 쓰시마에게 위임했다고 하여, 강화요청이 일본 중앙정부의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²³⁾ 또 일본이 내란 상태가 아니며 이에야스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음을 조선 정부에 알렸다. 이에야스에 대해서도 후덕하며 거짓이 없고 히데요시의 惡政에 비판적이라며, 이에야스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 주기 위해 노력했다.²⁴⁾ 하지만 히데요시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豊臣秀頼)가 이에야스의 딸과 혼인한다는 사실 등은 조선 정부가 이에야스를 확실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다.²⁵⁾

일본의 강화요청이 계속되면서 조선내에서는 일본 중앙정부와는 달리 쓰시마와의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을 탈출하여

18) 『宣祖實錄』 卷124, 33年 4월 丁亥.

19) 『宣祖實錄』 卷124, 33年 4月 己亥.

20) 『宣祖實錄』 卷134, 34年 2月 庚午 : 癸酉.

21) 『宣祖實錄』 卷136, 34年 4月 庚辰.

22) 『宣祖實錄』 卷145, 35年 正月 庚戌.

23) 『宣祖實錄』 卷157, 35年 12月 壬辰.

24) 『宣祖實錄』 卷158, 36年 正月 己未.

25) 『宣祖實錄』 卷160, 36年 3月 庚辰.

명을 통해 귀국한 노인은 일본에 대한 공격을 위해 쓰시마를 조선의 눈과 귀로 삼아야 한다고 했고,²⁶⁾ 피로인 姜沆은 일본을 대비하기 위해 쓰시마에게 羈縻策을 써야 함을 주장하였다.²⁷⁾ 당시 정국을 주도했던 李恒福 역시 쓰시마와 일본은 다르다며 쓰시마와의 통상을 통해 일본의 정세를 살필 것을 宣祖에게 건의했다.²⁸⁾

1602년 6월 쓰시마는 다시 도시마사를 보내왔다.²⁹⁾ 그러자 조선 정부는 쓰시마에 대한 무역 허가 여부를 놓고 오랫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조선은 이러한 사정을 명에 알리기로 했다.³⁰⁾ 이에 대해 명은 일본의 강화요청은 궁핍한 처지에 놓인 쓰시마의 자구책이며 조선의 동정을 엿보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이에야스가 집권했지만, 그가 아직 전국을 장악한 것이 아닌 만큼 일본의 재침 위험은 없으며, 혹시 침범한다 해도 명이 도울 것이라고 하며 조선과 쓰시마에 대한 통상 허가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³¹⁾ 이에 따라 쓰시마에 대한 무역 허가과 일본과의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603년 일본에서 돌아온 河東 출신 幼學 金光은 이듬해 2월 상소문을 통해 일본의 정세를 알렸다. 그 내용은 조선이 강화를 허락하지 않으면 일본은 재침할 것인데, 이는 이에야스의 뜻이 아니라 히데요시의 은혜를 받은 세력에 대한 배려 때문인 만큼, 조선은 일본에 通信使를 파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일본과의 강화는 명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조선의 주장은 핑계인 만큼 조선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에야스의 발언도 전했다.³²⁾ 쓰시마에서는 김광을 선조의 친척으로 생각했다. 때문에 조선이

26) 『錦溪日記』, 宣祖 32年 5月 16日
若以金帛 厚中其慾 常以對馬賊 爲我之間牒.

27) 『看羊錄』, 聞見錄 賊中聞見錄
待倭奴莫先於對馬島 待馬島無出於此策.

28) 『白沙集』 卷5, 筍子 辛丑六月辭職筍子 再筍
馬島形勢 與日本差間 姑許馬島之來款 以探日本之情形 固無不可.

29) 『宣祖實錄』 卷152, 35年 7月 己巳.

30) 『宣祖實錄』 卷166, 36年 9月 庚申.

31) 『宣祖實錄』 卷167, 36年 10月 甲辰.

32) 『宣祖實錄』 卷171, 37年 2月 戊申.

일본과의 강화에 대한 결정권이 명에 있다고 답해 왔는데, 이를 간파하고 빠른 시일내 국교재개를 위해 그를 이용했던 것이다.³³⁾ 지금까지 쓰시마에 대한 무역 허가만을 생각해 온 조선 정부로서는 일본 중앙정부의 통신사 파견 요청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³⁴⁾

김광의 상소문이 조선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큰 것이었다. 조선 정부는 쓰시마의 강화 요청은 이에야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쓰시마의 자의로 행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³⁵⁾ 하지만 김광의 상소문 이후 조선 정부는 쓰시마의 강화 요청을 이에야스의 뜻으로 생각하고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³⁶⁾ 조선 정부는 김광을 명에 보내 일본의 정세를 직접 알렸다.³⁷⁾ 내부적으로는 쓰시마를 기미책 안에 포용하고, 쓰시마와 이에야스의 관계를 엿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³⁸⁾ 이에 따라 조선 정부는 유정과 손문옥 등을 쓰시마에 파견하여 일본과의 국교재개에 대한 최종적 검토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3. 조선의 探賊使 파견

1604년 7월 조선 정부는 유정과 손문옥 등을 쓰시마에 파견하였다. 통치의 기본 이념을 性理學에 두었던 조선이 승려인 유정을 쓰시마에 파견하는 사신의 책임자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정은 전쟁 중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진영에 드나들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 일본인들에게 호감을 주었으며, 둘째, 일본이 불교를 숭상하는 국가임을 고려한 조치,

33) 方琪喆, 앞의 글, 60~61쪽 참조.

34) 『宣祖實錄』卷171, 37年 2月 庚戌.

35) 『宣祖實錄』卷143, 34年 11月 辛酉.

36) 閔德基, 1995, 앞의 글, 187쪽 참조.

37) 『宣祖實錄』卷171, 37年 2月 庚戌.

38) 仲尾宏, 앞의 글, 349쪽 참조.

셋째, 조선 국왕의 국서를 지참하지 않은 승려를 파견함으로써 일본의 요구에 임기응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³⁹⁾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 조선 정부가 일본과의 국교재개를 우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승려인 유정을 파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 사신의 명칭은 探賊使였다. '敵'이 아닌 '賊'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당시 조선이 일본을 敵禮 관계의 외교 상대국으로 보지 않고 조선을 침략했던 도적의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조선 정부는 일본과의 국교재개를 원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탐적사라는 명칭은 전후 처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조선이 일본을 정식 외교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보다 우월한 입장에 서려는 명분론이 반영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탐적사 일행은 도시마사와 동행하여 8월 20일 부산을 떠나 쓰시마로 향했다. 이들은 쓰시마에 도착하여 도주 소오 요시토시(宗義智)와 외교승 게이테쓰 겐소(景轍玄素)의 환대를 받았다. 당시 유정과 쓰시마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조·일간 국교재개에 관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 같다. 요시토시는 즉시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를 에도(江戶)에 파견하여 이에야스에게 의견을 물었고, 이에야스는 조선에서 파견한 사신 일행과의 회담을 결정하였다.

쓰시마에서 약 3개월 가량 머물던 조선 사신 일행은 11월 이에야스를 만나기 위해 교토(京都)로 향했다. 유정의 임무는 쓰시마에서 일본의 정세를 탐색하는 것이었지만, 유정이 일본 본토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선 정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⁴⁰⁾ 이러한 사실 역시 조선 정부가 사신을 파견하면서 일본과의 국교재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월 27일 교토에 도착한 유정 등은 이듬해 2월 한 차례 접견을 거쳐 3월 4일 교토의 후시미성(伏見城)에서 혼다 마사즈미(本多正純)와 세이쇼 조타이

39) 河字鳳, 앞의 글, 134~135쪽.

40) 『宣祖實錄』卷175, 37年 6月 丁亥.

(西笑承兌) 등과 강화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 때 있었던 회견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유정은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백성들이 오랜 도탄에 빠져 있음을 말했고, 이에야스 역시 불교를 믿었기에 신심을 발휘하여 화호를 맺게 된다.⁴¹⁾ 이후 이에야스는 유정과의 회담을 주선한 요시토시에게 2,000석, 시게노부에게 1,000석의 봉록을 주고, 겐소에게 紫色僧服을 하사하였다. 또 2년마다 행했던 산킨코타이(參勤交代)를 3년으로 완화해 주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에야스는 유정과의 회담 결과에 상당히 만족해했던 것 같다.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일본과의 국교재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1605년 5월 선조는 일본과의 외교관계 복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제왕이 이적을 끝까지 거절하는 도리는 없다. 또 우리나라와 일본은 불행히도 서로 가까이 있으니, 이는 천지가 끝나도록 함께 할 나라로 마치 음과 양, 낮과 밤이 함께 운행하면서도 어그러짐이 없는 것과 같은 것으로 난처하지 않다. 진영을 마주하고 전쟁을 할 때라면 화의는 그른 것이지만 적이 물러간 뒤이니 끝까지 거절하기도 어려울 듯 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⁴²⁾

위 글을 보면 선조는 지금 당장 일본과 국교재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을 오랑캐라고 마냥 멀리하는 것은 王道가 아니며, 조선과의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머지않아 교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기가 문제이지 일본과의 국교재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북방의 정세 역시 심상치 않았다. 1588년 누르하치(奴兒哈赤)는 建州衛를 통합했고, 1605년에는 조선에 사신을 보내 '建州等處地方國王修'을 자처하면서 조선과의 우호를 희망하는 국서를 보내왔다. 후라운(忽刺溫)은

41) 『四溟大師集』卷7, 有明朝鮮國慈通廣濟尊者四溟堂松雲大師行蹟

及見家康 備言兩國生靈久陷塗炭 康亦歸心釋教者也 聞而發言 敬之如佛 克成和好.

42) 『宣祖實錄』卷187, 38年 5月 戊子.

1605년 3월 童關,⁴³⁾ 7월에는 穩城,⁴⁴⁾ 이듬해 7월에는 訓戎縣城을 침략하는 등,⁴⁵⁾ 계속적으로 조선의 북방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이처럼 북방의 방비가 급박해진 만큼, 조선으로서는 남쪽의 일본과 우호를 통해 북방 방어에 전력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조선과 일본 모두 국교재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유정의 사행을 계기로 조선의 대일외교는 쓰시마에서 도쿠가와 바쿠후(德川幕府)로 대상을 바꾸게 되었다.⁴⁶⁾ 하지만 유정의 귀국 후에도 조선과 일본의 국교재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야스는 유정과 만나 강화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국서를 보내지 않았다. 때문에 조선 정부는 여전히 강화요청은 일본 정부가 아닌 쓰시마의 책략으로 생각했다.

유정 등이 귀국한 후에도 쓰시마는 1605년 11월, 1606년 정월과 4월 다시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여 강화를 재촉하였다. 이처럼 쓰시마가 끈질기게 국교재개를 요구해 오자 조선 정부내에서는 일본과의 국교재개를 위해 조선을 침략하지 않겠음을 서약하는 이에야스의 국서를 조선에 먼저 보낼 것〔先爲致書〕과 선릉과 정릉의 도굴범 소환〔犯陵賊押送〕을 요구할 것 등이 논의되었다.⁴⁷⁾ 뿐만 아니라 국서를 보낼 때 이에야스가 日本國王의 칭호를 사용할 것도 요구하였다.⁴⁸⁾

조선 정부가 이에야스에게 먼저 국서를 보낼 것을 요구한 것은, 일본이 강화를 요청하는 것을 명문화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犯陵賊 소환 요구는 강화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내부적 명분 확보를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야스에게 국왕호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 정부는 일본의 쇼군(將軍)을 ‘日本國大相國’·‘相國大夫’·‘日本國大

43) 『宣祖實錄』 卷185, 38年 3月 丙申.

44) 『宣祖實錄』 卷189, 38年 7月 戊寅.

45) 『宣祖實錄』 卷201, 39年 7月 甲戌.

46) 河宇鳳, 앞의 글, 149쪽 참조.

47) 『宣祖實錄』 卷199, 39年 5月 己卯.

48) 『宣祖實錄』 卷199, 39年 6月 癸亥.

將軍’ 등으로 불렀다. 그런 가운데 조선은 1401년 명 惠帝로부터 誥命과 印信을 받았고,⁴⁹⁾ 1403년 명 成祖로부터 다시 책봉을 받았다.⁵⁰⁾ 일본 역시 1402년 2월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滿)가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 그 결과 쇼군을 일본의 정치와 외교권의 주체자로 인정하면서 적례관계로 인식하고, 1404년 7월부터는 일본국왕의 호칭을 사용했다.⁵¹⁾ 이와 마찬가지로 이에야스에게 일본국왕의 칭호를 사용하게 하여, 명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관계를 명확히 하고 일본 최고 통치권자의 요청에 의해 국교재개가 이루어졌음을 명문화시키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조선 정부는 1606년 8월 전계신을 쓰시마에 파견하여 조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⁵²⁾ 하지만 이후에도 조선 정부내에서의 일본과의 국교재개에 대한 논의는 끝나지 않았다. 備邊司는 히데요시는 만세의 원수이지만 이에야스가 집권하여 히데요시의 잘못을 바로잡은 만큼, 조선이 요구한 범릉적과 이에야스의 국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사신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³⁾ 반면 司憲府는 이에야스는 내일의 히데요시가 될 수 있는 만큼 경계심을 거둘 수 없다며 일본과의 국교재개를 강하게 반대했다.⁵⁴⁾ 그러자 비변사는 다시 이에야스는 일본의 조선 침략 당시 자신의 군사를 조선에 파견하지 않았고, 書契를 보내 화친을 청하는 만큼 관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조정의 의견이 대립하자 선조는 임금과 대신의 처지는 다르다며, 국가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과의 국교재개를 결정했다.⁵⁵⁾

1606년 11월 쓰시마는 조선이 요구한 이에야스의 국서와 도굴범을 조선에 보내왔다.⁵⁶⁾ 조선 정부는 도굴범과 국서의 진위여부에 의문을 가졌다. 도굴

49) 『太宗實錄』 卷1, 元年 3月 乙丑.

50) 『太宗實錄』 卷5, 3年 4月 甲寅.

51) 『太宗實錄』 卷8, 4年 7月 己巳.

52) 『宣祖實錄』 卷203, 39年 9月 己卯.

53) 『宣祖實錄』 卷203, 39年 9月 己巳.

54) 『宣祖實錄』 卷204 39年 10月 庚申.

55) 『宣祖實錄』 卷204 39年 10月 癸亥.

56) 『宣祖實錄』 卷205, 39年 11月 丁丑.

범으로 조선에 넘겨진 마고사구(麻古沙九)와 마타 바케유치(麻多化之)도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부인했다.⁵⁷⁾ 하지만 조선 정부는 이들 역시 ‘賊’인 만큼 처형하는 것으로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⁵⁸⁾ 국서에 대해서도 선조는 이에야스가 보낸 국서가 倭書의 문체와 다르며, 명의 年號를 사용한 점, 이전에 사용하던 ‘德有隣’이 아닌 일본 국왕의 도서를 찍은 점, 이에야스가 셋쇼(攝政)의 지위에 있으면서 국왕의 칭호를 사용한 점 등을 통해 위서임을 확신했다.⁵⁹⁾ 사실 이항복은 범능적의 경우 진범을 보내지 않을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⁶⁰⁾ 강화 여부는 조선의 필요성에 따라야 함을 선조에게 주청한 바 있다.⁶¹⁾ 즉 조선의 요구를 일본이 성실하게 수행했는가 하는 것이 강화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다. 조선 정부가 강화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했던 것은 조선의 요구가 관철되는 모습을 통해 명분론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고 생각한다.

1607년 정월 조선은 正使 呂祐吉, 副使 慶暹, 書狀官 鄭好寬 등의 회담겸 쇄환사를 일본에 파견하였다. 국교재개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회담겸쇄환사는 5월 6일 에도에서 이에야스가 아닌 이에야스의 아들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를 만났다. 이에야스는 1603년 쇼군직에 올랐지만, 1605년 히데타다에게 양위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에야스는 오고쇼(大御所)로 모든 외교관계를 장악하고 있었다. 조선 사신은 히데타다와 국서를 교환하여 일본과의 국교를 재개하였다. 결국 조선과의 국교재개를 통해 이에야스는 아들 히데타다가 일본의 통치권자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목표를 달성하였던 것이다.

57) 『宣祖實錄』 卷205, 39年 11月 壬午.

58) 『宣祖實錄』 卷205, 39年 12月 甲寅.

59) 『宣祖實錄』 卷206, 39年 12月 戊午.

60) 『宣祖實錄』 卷199, 39年 5月 甲申.

61) 『宣祖實錄』 卷199, 39年 7月 乙亥.

4. 국교재개와 德川家康 인식

조선 정부는 1598년 11월 21일 이에야스가 일본의 정권을 장악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다.⁶²⁾ 이에 대해 명과 조선 정부는 히데요시 사후 내란이 있으면 공격이 없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재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⁶³⁾ 이러한 모습은 전쟁 직후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게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야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사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야스가 조선과의 국교재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세키가하라(關ヶ原)전투 이후의 일이다.⁶⁴⁾ 1600년 10월 이에야스는 세키가하라전투에서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오타니 요시쓰구(大谷吉繼)·유키나가·히데이에 등을 중심으로 한 히데요리 지지 세력을 격파하여 패권을 장악하고, 1603년에는 쇼군직에 올라 에도 바쿠후를 개창했다. 이처럼 전국을 장악하게 되자, 이에야스는 자신은 조선 침략과 관련이 없으며 히데요시의 惡政을 평정한 만큼 교섭을 재개할 것을 요청해 왔다.⁶⁵⁾ 즉 이에야스는 자신의 대조선 정책이 히데요시와 다르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조선과의 국교재개를 강력히 희망했던 것이다. 1606년 6월 사츠마(薩摩)는 만성적 재정적자를 류큐(琉球) 점령으로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이에야스는 사츠마의 류큐 점령을 조선과의 국교재개가 이루어진 이후로 연기하였다. 그 이유는 류큐 침략 사실이 조선에 알려지면 조선이 강화교섭을 외면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가졌기 때문이었다.⁶⁶⁾ 이처럼 이에야스는 자신의 집권후 조선과의 외교

62) 『宣祖實錄』 卷106, 31年 11月 壬寅.

63) 『宣祖實錄』 卷108, 32年 正月 庚戌.

64) 田中健夫, 「鎖國成立期における朝鮮との關係」, 『中世對外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1975, 261쪽 참조.

65) 『增正交隣志』 卷5, 通信使行: 『通文館志』 卷6, 交隣 下 通信使行 壬辰之事 身在關東 無所預知 況今盡半平賊之惡 實非讐怨 願與通和云.

66) 閔德基, 「조선·유구를 통한 에도 바쿠후(江戶幕府)의 對明 접근」, 『韓日關係史研究』2, 한일관계사연구회, 1994, 108쪽 참조.

관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이에야스가 조선과의 국교를 원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조선을 침략한 이후 일본은 동아시아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던 만큼, 명 및 조선과 국교를 맺음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공인받고 무역에 의한 재정증대를 위해서였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오사카(大坂)에 남아 있는 히데요리나 여러 다이묘(大名)들과의 격차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⁶⁷⁾ 둘째, 조선을 창구로 유교체제를 통한 태평시대를 이룩하기 위해서였다. 즉 조선과의 교류를 통해 부시(武士) 계급들의 마음을 순화시켜 문치로 이끌려 했던 것이다.⁶⁸⁾ 1753년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는 국교재개로 조선이 복수를 위해 군사를 파견하지 않게 된 것을 큰 다행으로 여겼다.⁶⁹⁾ 이를 통해 전후 일본 역시 조선의 침략을 경계하고 조선과의 강화를 통해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거둬들인 국교재개 요청과 유정의 파견 결과 조선 정부는 일본과의 국교회복을 위한 사신 파견을 결정하였다. 이때 사신의 명칭을 通諭使로 하자는 주장이 있었다.⁷⁰⁾ 하지만 선조는 이웃 국가에게 가르친다는 의미의 '諭'라는 글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⁷¹⁾ 임진왜란 이전 선조는 일본을 반역의 나라로 규정했지만,⁷²⁾ 전후 일본을 조선과 대등한 국가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 논의 끝에 조선 정부는 사신의 명칭을 '회답겸쇄환사'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보낸 서계에 답하며, 일본에 억류 중인 조선인들을 송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⁷³⁾ 적정 탐색 역시 사신의 중요

67) 미야케 히데토시(三宅英利) 지음, 김세민·강재덕·유재춘·엄찬호 옮김, 『조선통신사와 일본』, 지성의 샘, 1996, 18쪽 참조.

68) 최문정, 「일본 근세의 의미-통일권력자의 통아시아 국제사회 편입노력을 중심으로-」, 『日本研究』24, 韓國外國語大學校 日本研究所, 2005, 84~85쪽 참조.

69) 李元植, 『朝鮮通信使』, 民音社, 1991, 31~32쪽 참조.

70) 『宣祖實錄』卷202, 39年 8月 己未.

71) 『宣祖實錄』卷203, 39年 9月 癸酉.

72) 『宣祖實錄』卷21, 20年 9月 癸巳.

73) 『宣祖實錄』卷207, 40年 正月 己巳.

한 임무 중 하나였다. 당시 조선 정부는 사신 일행에게 적정 탐색에 필요한 준비와 행동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신의 명칭이 통신사가 아닌 회답검쇄환사였다는 것은 아직 조선이 일본에 대한 불신의 시각을 거두지 못했던 만큼, 일본을 통신의 대상으로 생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선조는 사신 파견의 목적이 일본의 정세를 살피는데 있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⁷⁴⁾ 즉 조선 정부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일본의 정세를 살피는 것이었던 만큼, 굳이 사신들에게 이에 대해 특별히 명령을 내릴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적정탐색은 다름 아닌 이에야스의 전국 장악 능력과 조선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지에 관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선조가 일본과의 국교재개를 결심하게 된 것은 이에야스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 선조는 이에야스가 국정을 장악하고 있지만, 히데요시의 잔당이 아직 건재하다는 사실 때문에 일본과의 강화를 망설였던 것이다.⁷⁵⁾ 대일강화를 결정하고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후에도, 변란이 일어나 이에야스가 실각하여 히데요리가 국정을 장악할 것을 걱정하였다.⁷⁶⁾ 이러한 모습들은 선조가 이에야스의 집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조선과 일본간의 평화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607년 2월 29일 부산을 출발한 조선의 사신은 쓰시마 - 잇키(一岐) -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 오사카 - 교토 - 도카이도(東海道)를 거쳐 5월 24일 에도에 도착했다. 6월 6일 사신 일행은 히데타다를 만나 국서를 전달했다. 이 때 히데타다는 上堂에 앉았고, 사신 일행은 中堂에서 예를 치른 후 동쪽 마루 위에 앉았다. 그 외 역관은 下堂, 關員은 楹外, 各役은 뜰 아래에서 예를 행했다.⁷⁷⁾ 즉 조선의 사신은 히데타다에게 동등한 신분간에

74) 『宣祖實錄』 卷204, 39年 10月 癸亥.

75) 『宣祖修正實錄』 卷40, 39年 5月.

76) 『宣祖實錄』 卷208 40年 2月 壬子.

77) 『海槎錄』 下, 6月 6日(丁酉)

堂有三級 高各半尺許 上堂鋪一錦褥 關白坐焉 使臣入就中堂行禮 仍坐東壁堂上 譯官於下堂 各員於楹外 各役於庭下 皆行禮而退.

행하는 예법인 楹外拜를 행했던 것이다. 1590년 파견되었던 통신사 일행 역시 영외배를 행했지만 히데요시에게 기둥 밖에서 행례했다. 하지만 도쿠가와 바쿠후는 조선 사신을 중당에서 배례케 하여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우대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도쿠가와 바쿠후가 조선 사신을 후대함으로써, 자신들이 조선과의 수호를 열망하고 있으며 조선에게 적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히데타다는 조선 사신에게 일본을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와 기쁨을 금할 수 없다고 하였다.⁷⁸⁾ 뿐만 아니라 사신들에게 직접 술과 음식 들기를 원하는 등 환대하였다.⁷⁹⁾ 경점은 히데타다를 만난 후, 그에 대해 용맹스럽고 담력이 많다고 평하였다.⁸⁰⁾ 1590년 일본을 다녀왔던 통신사 일행은 히데요시는 왜소하고 못생겼으며 얼굴은 검고 주름져 원숭이 형상이라고 하였다.⁸¹⁾ 일본에서 생활하다 돌아 온 강항 역시 히데요시의 외모에 대해 얼굴은 못생기고 키는 작아 외모가 원숭이와 같으며, 원래 손가락이 여섯 개였는데 성장한 후 하나를 잘랐다고 하였다.⁸²⁾ 이처럼 조선인들이 히데요시의 용모를 폄하했던 것과 비교하면, 당시 조선의 사신들은 히데타다를 호의적으로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6월 14일 히데타다의 답서를 받은 사신 일행은 에도를 출발, 이에야스를 만나기 위해 순푸(駿府)로 향했다. 1605년 이에야스는 쇼군직을 아들인 히데타다에게 물려주고 순푸에 있었는데, 오고쇼로 여전히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0일 조선 사신 일행은 이에야스를 만났는데, 이 때 역시 조선

78) 위와 같은 글

關白令佐渡守傳言曰 遠來良苦 不勝感悅云云.

79) 위와 같은 글

關白執著以勸之 酒兩巡 別進彩雲床四坐 分置各前 床設五色線綵花及塗金土盃 關白先執盃勸之 令佐渡傳言曰 一盃酒 願各盡飲.

80) 위와 같은 글

關白名秀忠 年二十九 形貌勇銳多膽氣.

81) 『宣祖修正實錄』 卷25, 24年 3月.

82) 『看羊錄』, 聞見錄 壬辰丁酉入寇諸倭將數

賊魁秀吉 尾張州中村鄉人也 生於嘉靖丙申 貌寢身短 狀如猿猴 遂以爲小字 生而右手有六指及長曰人皆五指 六指何用 自以刃截去之.

사신들은 당상에서 배례하였다.⁸³⁾ 이에야스도 아들인 히데타다와 마찬가지로 조선 사신에게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조선 사신과 만난 자리에서 이에야스는 이미 조선과 일본의 화호가 이루어진 만큼 절대 딴 마음을 먹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⁸⁴⁾ 경섬은 이에야스에 대해 66세이지만 형체가 장대하고 老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야스의 건재함을 확인하였다.⁸⁵⁾

조선의 사신들은 이에야스와의 대면 이전 일본에서 그에 대한 정보를 다각도로 수집하고, 그 결과 이에야스에 대해 우호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 조선 사신 일행은 이에야스와 대립했던 히데요리의 출자에 대해

수뢰는 그 어미가 간부와 간음하여 낳은 아들이다. 수겔이 죽은 후에 간부의 일이 발각되자, 가강이 그의 죄를 다스리고 싶었으나 처치곤란한 점이 있음을 생각하여, 다만 그 간부를 絶島에 귀양을 보냈는데, 왜국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수뢰를 조롱하기에 이르렀다.⁸⁶⁾

라고 설명하였다. 즉 히데요리는 히데요시의 아들이 아니라는 인식을 통해 이에야스 정권의 탄생이 필연적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또 전후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가 조선 침략에 대한 공을 요구하자, 이에야스는

조선은 예의의 나라로 다만 文教만 숭상하고 武를 드날리거나 군대를 뽑내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유 없이 군대를 일으켰으니, 비록 전쟁에 이겼다 해도 무가 될 것이 없는데 무슨 공이 있겠소.⁸⁷⁾

83) 『海槎錄』下, 6月 20日(辛亥)

家康着其冠服 坐西夾堂 堂有二級 高各半尺 先陳禮物於西楹外 使臣入中堂 行再拜禮 仍東壁坐 堂上譯官二人 亦於楹外 行再拜禮.

84) 위와 같은 글

兩國既已和好 將軍亦極感悅 彼此不須致疑 吾父子未死之前 亦豈有他腸乎.

85) 위와 같은 글

家康年六十六 形體壯大 觀其氣力 不至衰老.

86) 『海槎錄』上, 4月 9日(辛丑)

倭中傳言 秀賴之母 淫奸問夫而生秀賴 秀吉死後 問夫事覺 家康欲正其罪 而慮其處置難便 只寬其問夫於絶島 國人至於作歌 以譏秀賴云.

87) 위와 같은 책, 5月 8日(庚午)

라고 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이에야스가 자신의 주장대로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또 이에야스는 조선 사신의 행차를 충무에서 지켜보며 무척 기뻐했다는 사실을 통해,⁸⁸⁾ 이에야스가 진심으로 조선과의 국교회복을 원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조선 사신은 이에야스와 히데타다를 만나기 이전 이미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호의적으로 평가했던 것이다.

1608년 7월 3일 귀국한 사신 일행은 17일에 복명하였다.⁸⁹⁾ 사신들의 복명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 내용을 통해, 조선 정부는 이에야스의 견제함과 에도 바쿠후가 조선에게 적의가 없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국교재개의 임무를 완수한 사신 일행은 일본에서 보내 온 서계에 不恭스런 표현이 있고, 일본에서 병기를 매입하려 한 것은 나라를 욕되게 한 것이라는 탄핵을 받았다. 이후 20일에 걸쳐 사헌부와 사간원은 사신 일행에 대한 처벌을 주장했지만, 선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⁹⁰⁾ 오히려 선조는 강화를 통해 일본을 귀의케 해야 하며, 전란을 막아야 하며, 서계의 사소한 語句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⁹¹⁾ 이러한 모습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선조가 일본과의 국교재개는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는 자신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전과는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변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조선이 일본과 국교를 재개했다고 해서 에도 바쿠후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거둔 것은 아니었다. 1615년 이에야스는 오사카성을 근거로 하고

家康曰 朝鮮禮義之邦也 只尙文教 非有揚武耀兵之事 而無故興兵 雖戰勝 不足爲武 何功之有.

88) 위와 같은 책, 5월 17日(己卯)

行次過府之時 家康與宮嬪之類 上層樓觀光 甚爲喜悅云.

89) 위와 같은 책, 7월 17日(丁未)

七月初三日還渡釜山浦 十七日入京復命 自辭朝至復命 凡二百十二箇日子也.

90) 李敏昊, 1995, 앞의 글, 107~111쪽 참조.

91) 『宣祖實錄』卷215, 40年 9月 丙申.

있던 히데요시의 측실 요도도노(淀殿)와 히데요리를 중심으로 한 도요토미의 잔존세력을 완전히 멸망시켰고 [오사카전투(大坂の陣)], 쓰시마 도주는 사신을 파견하여 이러한 사실을 조선 정부에 알려왔다.⁹²⁾ 어떤 의미에서 이에야스는 조선의 원수를 갚아준 것이었지만, 그의 전국 통일은 조선과 명을 다시 긴장시켰다. 그 이유는 히데요시 역시 전국통일 후 조선에 대한 군사행동을 감행했기 때문이었다.

이에야스가 일본 전국을 평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명은 이에야스가 다른 뜻을 품을 수 있다며, 조선의 방비를 엄히 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⁹³⁾ 1617년 정월 쓰시마 도주에 의해 귀국한 피로인 愼應昌은 일본의 정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 중에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는 그가 제공한 정보 중 이에야스의 용병술에 대한 내용은 謄書하여 각 지역의 兵使와 水師에게 보냈다.⁹⁴⁾ 이러한 모습은 조선 정부가 에도 바쿠 후를 신뢰하면서도 여전히 경계심을 거두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대한 조선인의 적개심은 이에야스에 대한 시각을 통해 변화되고 있었고, 그 결과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했다. 하지만 7년간의 전쟁이 남긴 상처는, 단시일 내 일본에 대한 경계심과 적대감을 완전히 씻기에는 너무나 깊었던 것이다.

5. 맺음말

1592년 4월에 있었던 일본의 조선침략은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일어난

92) 『光海君日記』 卷94, 7年 閏8月 丙辰.

93) 『光海君日記』 卷103, 8年 5月 己丑.

94) 『備邊司謄錄』1, 光海君 9年 丁巳 4月 2日.

것이였다. 물론 한국사에서 전쟁의 시작이 갑작스러웠던 것은 임진왜란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끝은 달랐다. 漢의 침략은 古朝鮮의 멸망과 漢四郡의 설치로 끝이 났다. 隋와 唐의 침략은 高句麗의 승리, 신라와 당의 전쟁은 신라의 승리, 紅巾賊의 침략은 高麗의 승리로 끝이 났다. 契丹의 침략 당시에는 고려와 遼가 강화를 통해 전쟁을 마무리 지었다. 임진왜란 후에 있었던 淸의 침략 역시 강화조약을 맺음으로써 종전이 이루어 졌다.

임진왜란의 경우 1593년 겨울부터 전쟁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4년 여에 걸쳐 명과 일본은 강화회담을 벌였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었고, 1597년 일본은 다시 조선을 침략하였다. 2차침략 당시 일본은 명확한 전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군사를 물렸다. 결국 임진왜란의 경우 승자도 패자도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공식적인 협정이나 강화없이 일본의 일방적 철군으로 끝이났던 것이다.⁹⁵⁾ 때문에 조선과 일본 양국은 전후 양국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교재개를 위해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7년여에 걸친 장기전, 치열한 공방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전후 양국의 국교재개는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 진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은 감정적으로는 일본과 강화할 수 없었지만, 대내적으로는 國家再造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평화가 절실히 필요했다. 대외적으로는 여진족의 급격한 세력신장에 따라 북쪽 변방 방위가 중요했던 만큼, 남쪽의 일본과는 평화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일본의 경우 새로 집권한 이에야스는 자신의 권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조선과의 국교재개가 반드시 필요했다. 쓰시마로서도 재정의 상당 부분을 조선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조선과의 국교회복에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임했다. 이러한 조선·이에야스 바쿠후·쓰시마 등의 이해관계가 빠른 시간내에

95) 일본의 조선 침략은 분명히 실패로 끝이 났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승리한 전쟁이었다고 말하기도 힘들 것 같다. 조선군의 공세적 우위에 의해 일본군이 철군한 것은 아니었다. 국왕은 도성을 버리고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또 전국토가 황폐화 되었으며, 조선 전체 인구 1/3 이상의 인명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과연 조선이 승리한 전쟁인가에 대해서는 再考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일 양국의 외교관계 복원을 이루게 하였던 것이다.

조선의 입장에서 일본과의 국교재개는 대일인식의 변화가 동반된 것이었다. 선조는 전쟁 전 일본을 섬 오랑캐〔島夷〕로 규정했다. 일본군의 침략을 맞아서는 피난길을 전전했고, 臨海君과 順和君 등 2명의 아들은 일본군의 포로로 사로잡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전후 일본과 국교재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고, 일본인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즉 선조의 일본에 대한 시각은 전쟁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변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光海君 역시 일본 사신에 대한 접대가 박한 것을 나무라며 음식 등을 넉넉히 지급할 것을 지시했고,⁹⁶⁾ 사헌부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인이 부산에서 교역하는 것을 허락했다.⁹⁷⁾ 조선이 일본과의 국교재개를 결정함에 있어 이에야스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 것 역시 일본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정부는 전쟁 후 불과 9년 만에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여, 임진왜란 이전과 마찬가지로 외교관계를 복원하였다. 국교재개후에는 12회에 걸쳐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1608년 정월 조선과 일본의 공무역이 재개되고, 1609년에는 己酉約條를 체결하였다. 1611년에는 쓰시마에서 세견선이 파견되면서 공무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632년부터 1860년까지는 禮曹參議 명의로 쓰시마에 問慰行을 54회에 걸쳐 파견하기도 했다.⁹⁸⁾ 임진왜란전 조선 정부는 1443년부터 1590년까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다. 이와 비교하면 전후 조선의 대일외교 자세가 매우 적극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조선이 일본의 재침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

96) 『光海君日記』卷14, 元年 3月 庚戌.

97) 『光海君日記』卷26, 2年 3月 辛卯：癸巳；甲午；乙未；丙申；丁酉 등 참조.

98) 조선 후기 대일외교 사절의 하나인 問慰行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이 참고된다. 洪性德, 「朝鮮後期 問慰行에 대하여」, 『韓國學報』59, 一志社, 1990；홍성덕, 「조선 후기 對日외교사절 問慰行의 渡航人員 분석」, 『韓日關係史研究』11, 한일관계사학회, 1999；洪性德, 「朝鮮後期 對日外交使節 問慰行 研究」, 『國史館論叢』93, 國史編纂委員會, 2000；洪性德, 「朝鮮後期 對日外交使行과 倭學譯官」,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景仁文化社, 2005；李尙奎, 「仁祖代 전반 問慰行 연구」, 『韓日關係史研究』35, 한일관계사학회, 2010.

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진왜란 이전과는 달리 일본을 적례적 교린의 대상으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과 국교가 재개된 이후인 1617년과 1624년에도 조선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 때 사신의 명칭은 회담겸쇄환사였다. 하지만 1636년부터는 통신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통신사란 말 그대로 신의를 통한다는 의미이다. 조선이 요구한 명의 연호 사용과 일본국왕호 사용 등의 요구는 몇 차례를 제외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를 파견했다는 사실은 조선이 외교적 배려를 베풀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선이 일본을 대등한 국가로 인식하고 교린을 행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명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는 변화하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 명에서 청으로 왕조교체가 이루어졌고, 일본의 경우 히데요시에서 이에야스로 바쿠후 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조선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전쟁전과 다른 외교관계와 외교이념이 필요했다. 그 결과 전쟁전과는 다른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일본을 상대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과 일본은 7년간에 걸친 전쟁, 9년 여에 걸친 외교관계 회복 노력 끝에 1607년 국교를 재개하였다. 이후 200여 년 동안 조선과 일본 양국의 평화관계는 유지되었다. 이는 조선과 일본이 대의명분을 중시하면서도 실리를 중심으로 외교관계를 전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고투고일 : 2012. 9. 1, 심사수정일 : 2012. 9. 5, 게재확정일 : 2012. 9. 6)

주제어 : 국교재개, 대일인식, 도쿠가와 이에야스, 쓰시마, 유정, 임진왜란, 탐적사, 회담겸쇄환사

99) 일본의 쇼군은 자신을 일본 국왕으로 칭하는 것을 회피했다. 그 이유는 천황가로부터의 비판을 피하고, 천황이라는 존재의 관계를 모호하게 해두려는 정치적 배려 때문이었다 (나카오 히로시 지음 / 손승철 옮김, 『에도 일본의 성신 외교 조선통신사』, 小花, 2012, 28쪽).

<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 of Joseon and Japan Resuming Their Diplomatic Relationships after Japan's Invasion of Joseon in 1592

Bang, Ki-cheol

Almost right after Japan's Invasion of Joseon in 1592 ended, Japan requested the resumption of diplomatic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the anti-Japanese sentiment among the Joseon people was too strong to allow the resumption.

Tokugawa Ieyasu asked Joseon to resume its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Japan through the Tsushima Island after the Sekigahara battle, but Joseon refused his request. Then Tsushima demanded reconciliation, proposing the return of captives and spreading a rumor about re-invasion. Joseon was not able to easily take a position because it could not clearly determine whether the re-invasion rumor was true and the request for the resumption of diplomatic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the intention of Ieyasu. However, it ended up dispatching Yu Jeong(惟政) as Tamjeoksa(探賊使) to Tsushima in 1604, giving in to its repeated requests. Yu Jeong met with Ieyasu in Edo and agreed on the restoration principles of diplomatic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Ieyasu did not send the credentials and accordingly prevented the formal diplomatic relationships from being formed between the two countries.

After that, Tsushima continued to make requests for resuming diplomatic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countries. Joseon asked for Ieyasu's credentials and subpoena on the robbers of Seonreung(宣陵) and Jeongreung(靖陵), finally its requests were met by Japan. Even though there was doubts on the authenticity of the credentials and the robbers, Joseon restored its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Japan by dispatching Hoidapgyeomsoehwansa(回答兼刷還使) in 1607.

Joseon decided to resume its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Japan because it had to focus on the defense on its northern border with the growing Jurchen state as well as post-war restoration efforts. In addition, Joseon people grew favorable to Japan, especially Ieyasu, which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resumption. King Seonjo(宣祖) regarded Japan as an equal of Joseon unlike his perception before the war and exhibited a friendly attitude to Ieyasu. The envoys of Joseon dispatched to Japan were also friendly to Ieyasu and his son Tokugawa Hidetada, and Ieyasu and Hidetada treated them well, too.

The international order was changing around Ming Dynasty after Japan's invasion of Joseon in 1592. In China, Ming Dynasty was being replaced by Qing Dynasty. In Japan, the Toyotomi Hideyoshi feudal government was replaced by the Ieyasu feudal government. In those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s, Joseon needed a different diplomatic ideology from before the war in order to make active responses to them and thus treated Japan in a more equal position than before the war.

Key Words : Hoidapgyeomsoehwansa(回答兼刷還使),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Perception of Japan, Tamjeoksa(探賊使), the resumption of diplomatic relationship, Tokugawa Ieyasu, Tsushima, Yu Jeong(惟政)